

중국, 석탄 수출국에서 수입국 전환

2009년 수출 급감하고 수입은 급증 ... 석유 포함 자원 해외의존 심화

석탄 수출대국인 중국이 2009년 처음으로 석탄 순수입국으로 전환했다.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11월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8910만톤인 반면, 1-12월 수출량은 2240만톤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석탄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은 석탄 최대 생산 및 수출국이었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석탄 수요가 줄어들고 국제가격이 중국 내 석탄 가격보다 낮아져 수출은 급감한 반면, 수입은 크게 늘면서 석탄 순수입국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석탄 수입 증가세가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세계 석탄 수요가 늘면 중국은 머지않아 석탄 수출국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은 2009년 석유 소비량 가운데 수입제품이 51.3%를 차지해 수입 석유 의존국가가 됐다.

고속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의 연간 석유 소비량은 6.8% 증가한 반면, 생산량 증가율은 1.6%에 그치면서 2009년 2억톤 이상의 석유를 수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18>